ETF Strategy

유진투자증권

Bi - Weekly #122 | 2026.3.3

ETF/파생 강송철 Tel. 02)368-6153_ buykkang@eugenefn.com

KOSPI200 ETF,
코스닥150 ETF

신고가, 신저가 ETF

ETF 투자전략

SUMMARY

KOSPI200 ETF, 코스닥150 ETF

2월말 기준 국내 ETF 시장 규모는 38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상품 수는 1천개를 상회한다. 국내 상장된 ETF 시가총액을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과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눠 보면, 국내 투자 ETF의 시총 비중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비중이 증가 반전했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세부적인 분류 별로 나눠서 보면, 테마형 주식 ETF의 시가총액 비중이 작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 말 이후 시장대표형 주식 ETF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시장대표형 ETF는 KOSPI200, 코스닥150 지수를 추적하는 ETF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KOSPI200 지수 ETF 규모(시가총액)가 급증했다. 레버리지, TR 등을 포함한 KOSPI200 ETF 시가총액은 작년 8월말 21.4조원에서 올해 2월말 55조원 이상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닥150 지수를 추적하는 ETF의 시총 규모 증가는 더 드라마틱하다. 코스닥150 지수 ETF는 작년 말 4조원 규모였지만, 2월말 17조원으로 두 달 만에 4배 급증했다.

KOSPI200 ETF 시가총액이 작년 8월말 21조원에서 올해 2월말 55조원으로 2배 이상, +150% 증가하는 동안 주가(KOSPI200 지수)는 +120% 상승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KOSPI200 ETF로의 자금 유입은 2.7조원으로, ETF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5% 수준이다. 기간 중 ETF 규모 증가는 거의 대부분 주가 상승으로 설명된다.

SUMMARY

반면 코스닥150 ETF 시가총액이 작년말 4조원에서 2월말 17조원으로 두 달 만에 4배, +320% 증가하는 동안 주가(코스닥150 지수) 상승은 +37%였다. 연초 이후 코스닥150 ETF 시총 규모 급증은 주가 상승보다 거의 대부분 자금 유입 때문이다. 두 달간 코스닥150 ETF로 10조원 이상 자금이 유입됐다. 급격한 자금 유입은 '코스닥 시장 개선' 에 대한 정책 기대 때문이다. 연초 이후 코스닥150 지수는 2015년 출시 이후 장기간 등락 범위 상단이었던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훌쩍 뛰어넘는 상당한 "기대"가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KOSPI 지수와 KOSPI (영업)이익은 상관관계가 높다. 올해 KOSPI 영업이익 컨센서스 610조원을 가정하면(2월말 기준), 적정 KOSPI 지수는 6,200p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시장 등락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 이상의 지수 상승도 과거 흔하게 나타났다.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이 맞다면, KOSPI(or KOSPI200) 지수는 이익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또한 국내증시의 급격한 상승이 정부 정책 영향(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것 임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영업이익은 2021년, 2022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감소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 증가가 예상되지만(12.7조원), 컨센서스 기준 올해(2026) 예상 코스닥 영업이익은 코스피와 비교하면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ETF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KOSPI200 ETF 시총의 30% 이상 수준까지 급증한 코스닥 ETF 규모가 과해 보일 수 있다.

01

** 차트 및 데이터는 2월 27일 마감 기준입니다.*

52주 신고가/신저가 ETF

1. 52주 신고가 ETF

2. 52주 신저가 ETF

52주 신고가 ETF

한국: EWY (iShares MSCI South Korea Capped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오일서비스: IEZ (iShares U.S. Oil Equipment & Service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한국 방산: KDEF (PLUS Korea Defense Industry Index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TSMC커버드콜: TSMY (YieldMax TSM Option Income Strategy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52주 신고가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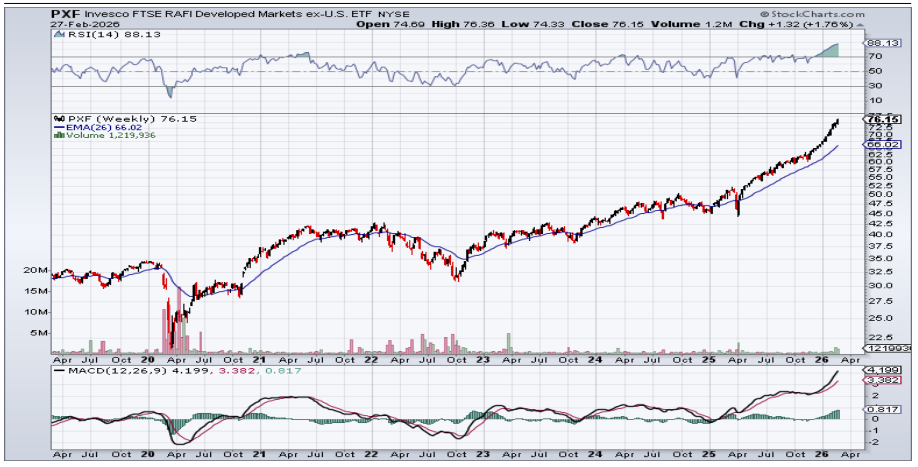
브라질: FLBR (Franklin FTSE Brazil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대만: FLTW (Franklin FTSE Taiwan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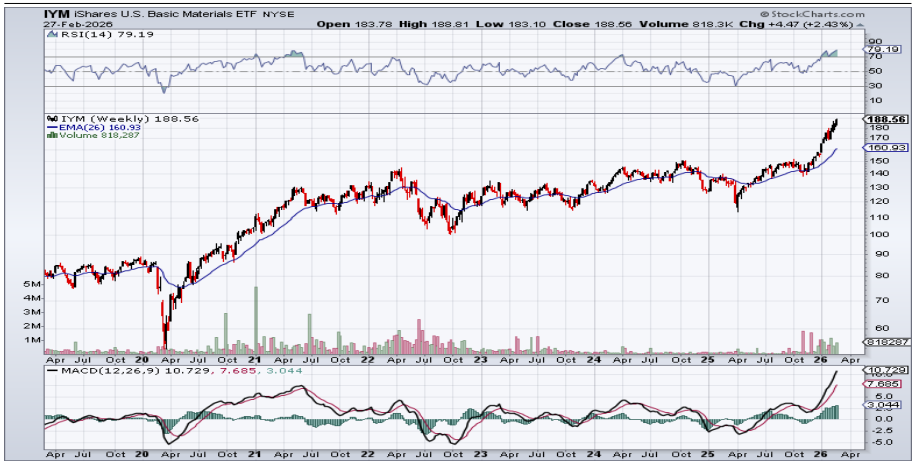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미국 제외 선진국: PXF (Invesco FTSE RAFI DM ex-U.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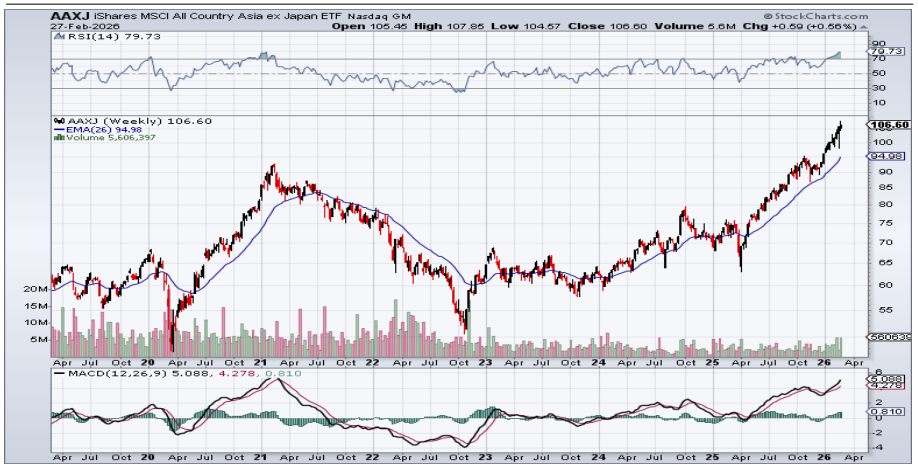
소재업종: IYM (iShares U.S. Basic Material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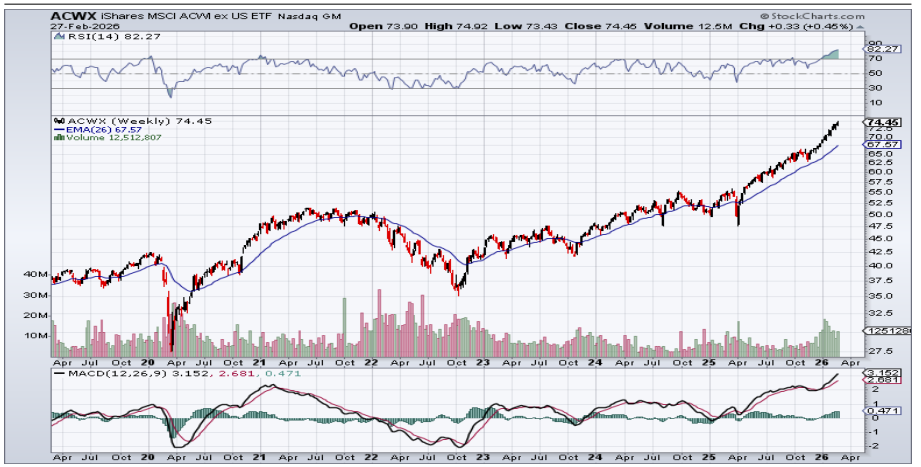
52주 신고가 ETF

아시아 ex 재팬: AAXJ (iShares MSCI All Country Asia ex Japan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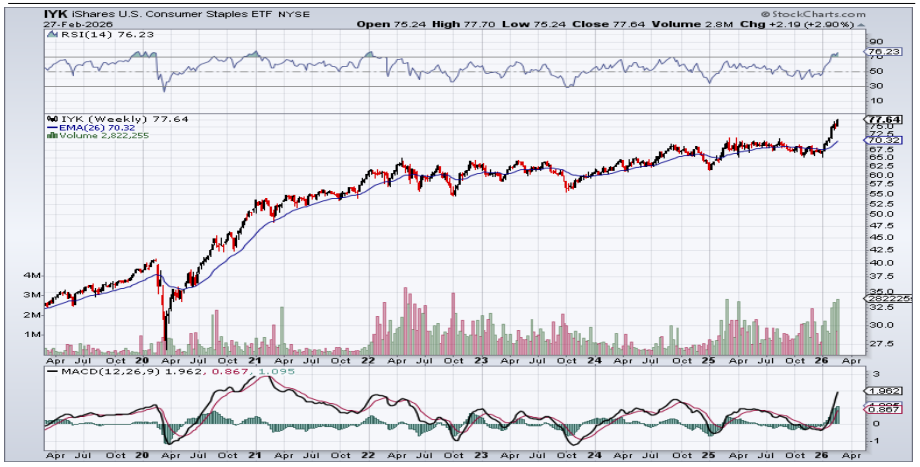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CWI ex US: ACWX (iShares MSCI ACWI ex U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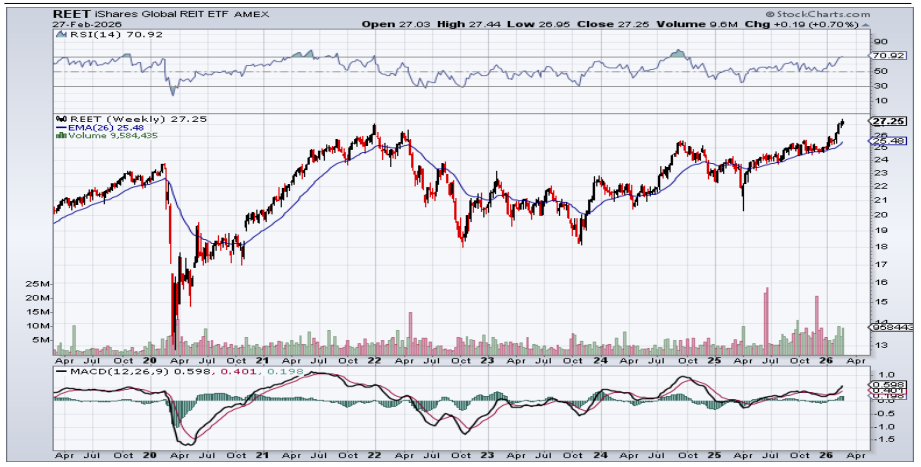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미국 필수소비재: IYK (iShares U.S. Consumer Staple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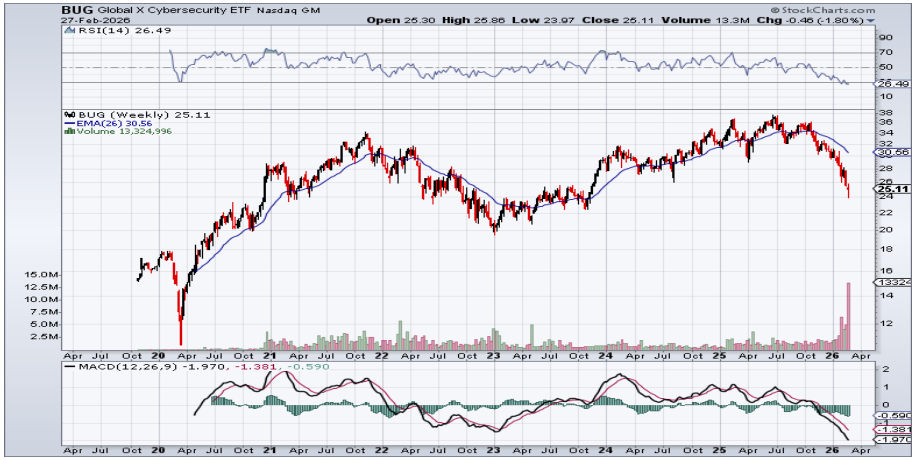
리츠: REET (iShares Global REIT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52주 신저가 ETF

사이버보안: BUG (Global X Cybersecurity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사이버보안: WCBR (WisdomTree Cybersecurity Fund)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02

ETF 투자전략

1. 국내 ETF 시장 규모

2. KOSPI200, 코스닥150 ETF

3. KOSPI, KOSDAQ 영업이익

4. KOSPI200, 코스닥150 업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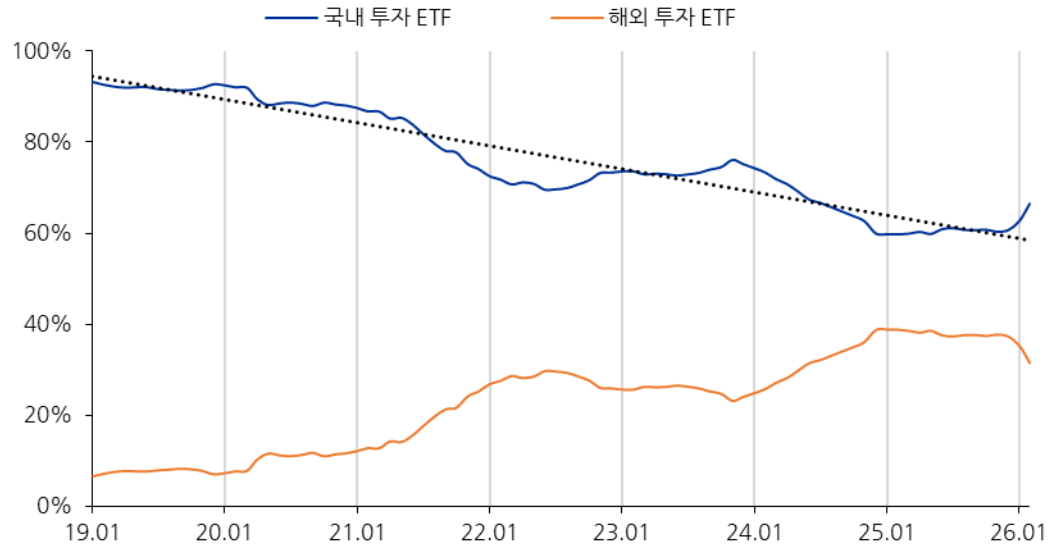
국내 ETF 시장 규모

국내 투자 vs. 해외 투자 비중

- 국내 ETF 시장 규모는 380조원 이상으로 크게 커졌음(387조원, 2월말 기준). 상품 수는 1천개를 상회(1,068개, 1월말 기준. KRX ETF monthly).
-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0년말 51조원, 2022년말 76조원 이었음. 코로나 이후 7배, 2022년말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배 규모가 커졌음
- 국내 상장된 ETF 시가총액을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과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눠 보면,
- 국내 투자하는 ETF 시총 비중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그러나 올해 비중이 증가 반전함.

(2월말 기준 국내 투자 ETF 67%, 해외 투자 ETF 32%)

[국내 ETF 시장] 시가총액(AUM) 비중: 국내 투자 ETF, 해외 투자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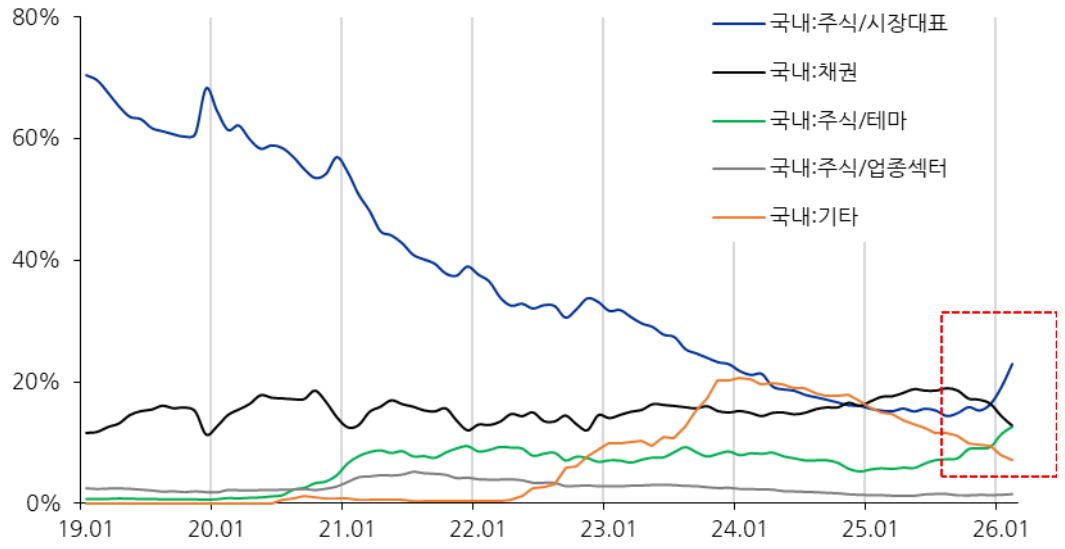
자료: KRX, Fnguide, 유진투자증권

국내 ETF 시장: 분류 별

테마형, 시장대표형 주식 비중 증가

-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세부적인 분류 별로 나눠서 보면,
- 주식 테마형 ETF의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채권 ETF 비중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함(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 또한 작년 말 이후 시장대표형 주식 ETF 비중이 증가함

[국내 ETF 시장] 시가총액(AUM) 비중: 국내 투자 ETF_분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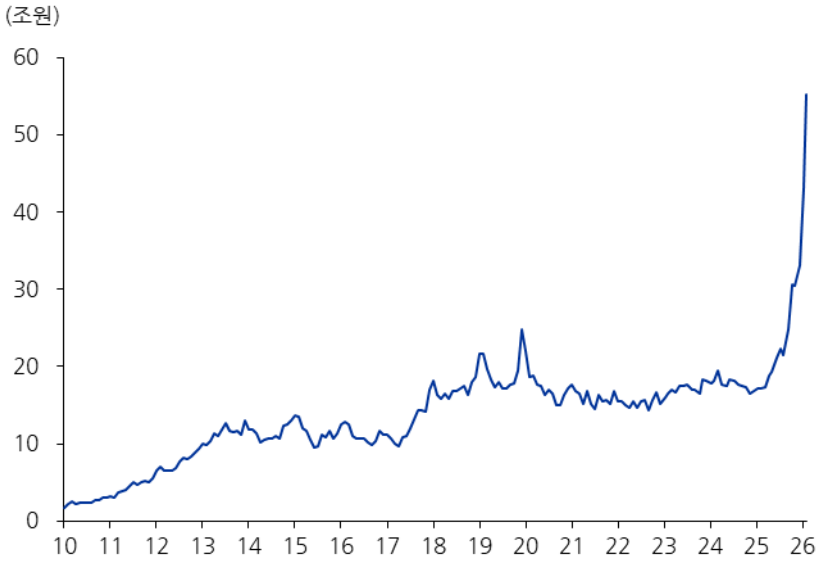
자료: KRX, Fnguide, 유진투자증권

KOSPI200, 코스닥150 ETF

KOSPI200, 코스닥150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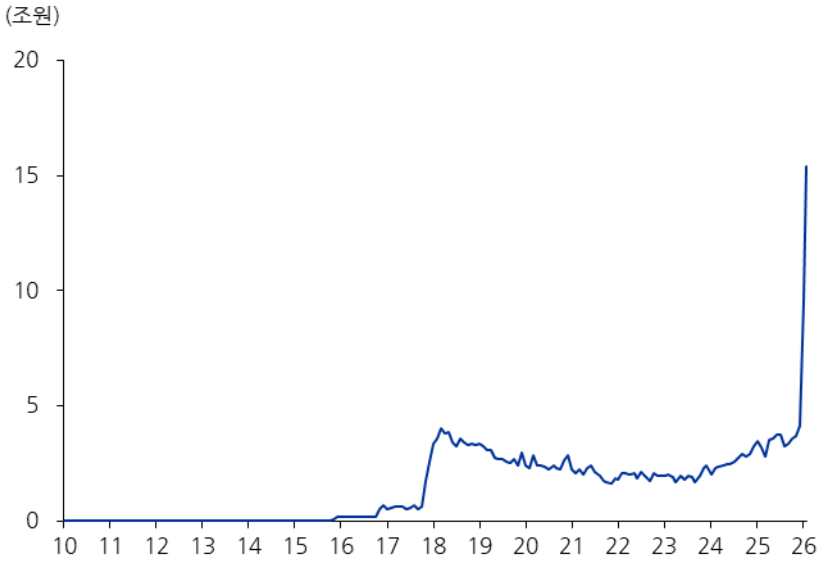
- 국내 주식: 시장대표형 ETF는 KOSPI200, 코스닥150 지수를 추적하는 ETF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작년 하반기 이후 KOSPI200 지수 ETF 규모(시가총액)가 급증했음.
- KOSPI200 지수 ETF 시가총액은 작년 8월말 21.4조원에서 올해 2월말 55조원 이상으로 2.5배 이상 급증함
- 코스닥150 지수를 추적하는 ETF 시총 규모는 더 드라마틱하게 급증했음.
- 코스닥150 지수 ETF는 작년 말 4조원 규모였지만, 2월말 17조원 으로 2개월만에 4배 급증함

KOSPI200 ETF 시가총액 추이



자료: KRX, Fnguide, 유진투자증권. KOSPI200, TR, 레버리지 ETF 합산

KOSDAQ150 ETF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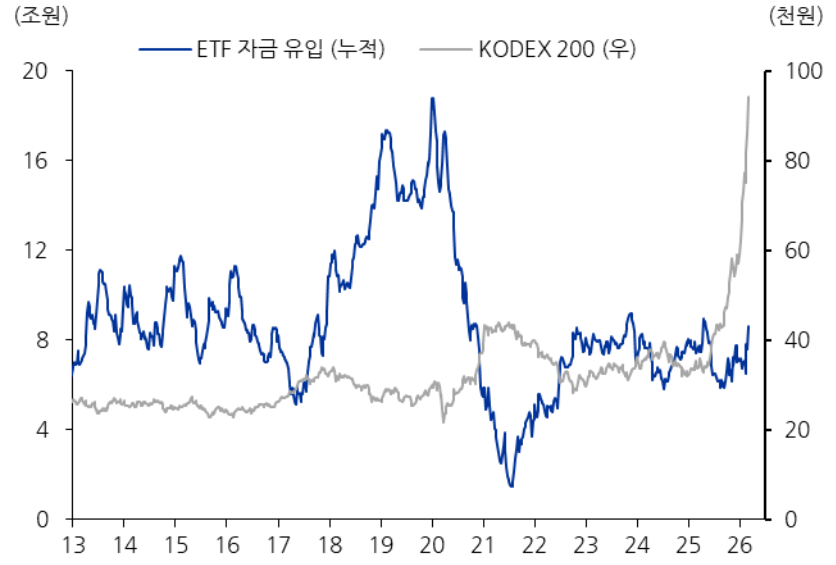
자료: KRX, Fnguide, 유진투자증권.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 합산

KOSPI200, 코스닥150 ETF

주가 상승과 자금 유입으로 나눠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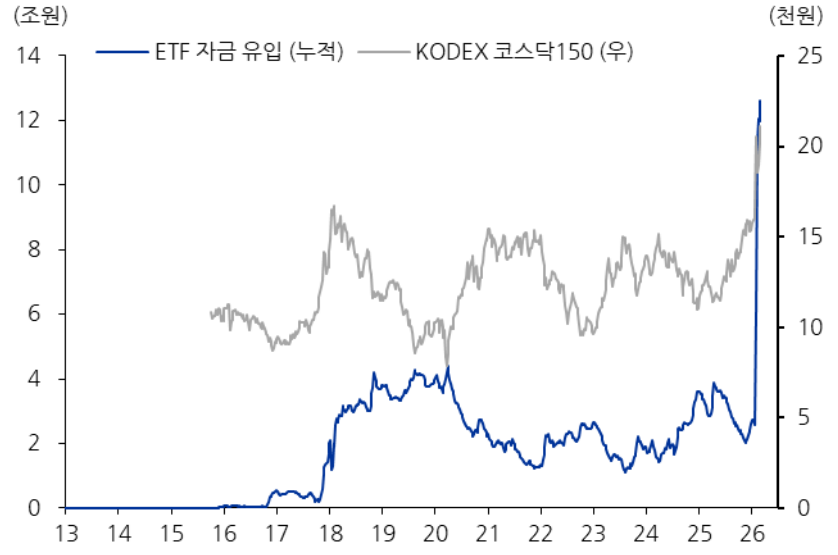
- KOSPI200 ETF 시가총액은 작년 8월말 21.4조원에서 올해 2월말 55조원으로 2배 이상, +150% 증가함
- 같은 기간 주가는 +120% 상승.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KOSPI200 ETF로의 자금 유입은 2.7조원으로, ETF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5% 수준. 기간 중 ETF 규모 증가는 거의 대부분 주가 상승으로 설명됨
- 코스닥150 ETF 시가총액은 작년말 4조원에서 2월말 현재 17조원으로 두 달 만에 4배, +320% 증가
- 같은 기간 주가(코스닥150 지수)는 +37% 상승. 즉, 연초 이후 코스닥150 ETF 시총 규모 급증은 주가 상승보다 거의 대부분 자금 유입 때문임
- KOSPI200 ETF로의 자금 유입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코스닥150 ETF로의 자금 유입은 유례 없는 수준

KOSPI200 ETF 자금 유입 누적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KOSDAQ150 ETF 자금 유입 누적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코스닥150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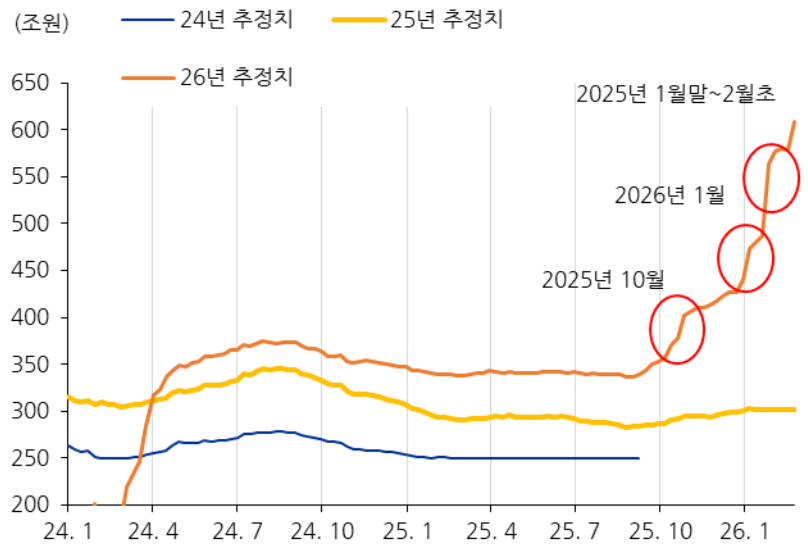
- 코스닥150 ETF 자금 유입 급증은 나쁘게 보면 '(상당히) 과도한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 하지만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 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음
- 급격한 자금 유입은 '코스닥 시장 개선' 에 대한 정책 기대 등을 반영. 연초 이후 코스닥150 지수는 2015년 출시 이후 장기간 등락 범위 상단이었던 수준을 상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을 훌쩍 뛰어넘는 "기대"(자금 유입)가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 혹은 급격한 자금 유입이 반대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상존

적정 KOSPI 수준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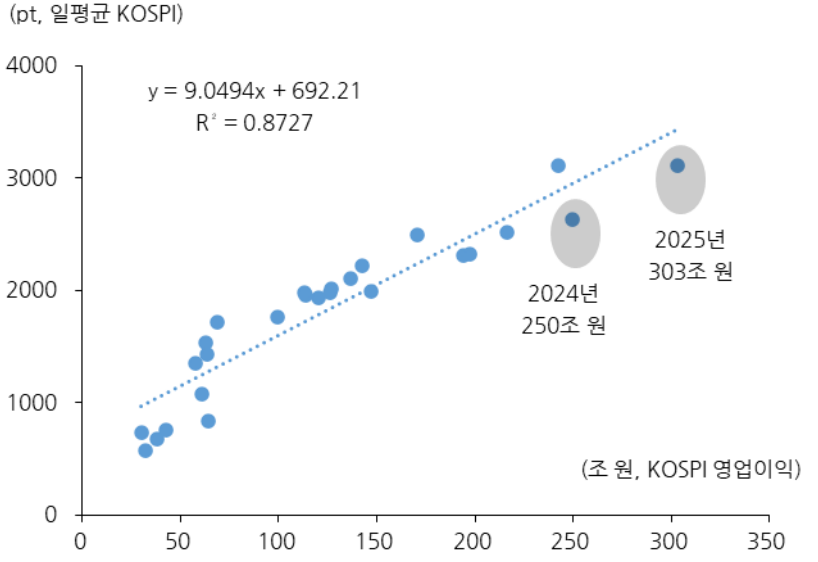
- KOSPI 지수와 KOSPI (영업)이익은 상관관계가 높음.
- 주지하다시피 작년 9월 이후 올해(2026) KOSPI 이익 전망치는 급격하게 상향 조정됐음. 최근(2월 27일) 기준 올해 KOSPI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10조원 까지 급증함. 이익 전망 증가분의 대부분(90% 이상)은 반도체가 차지
- 올해 KOSPI 영업이익 610조원을 가정하면, 적정 KOSPI 지수는 6,200p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음. 시장 등락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 이상 상승도 흔함.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이 맞다면, KOSPI(or KOSPI200) 지수는 이익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임
- 이는 또한 국내증시의 급격한 상승("코스피 5000")이 정부 정책 영향(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것 임을 의미함

KOSPI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KOSPI 이익 따라 KOSPI 지수 수준 결정 (2000년~2025년)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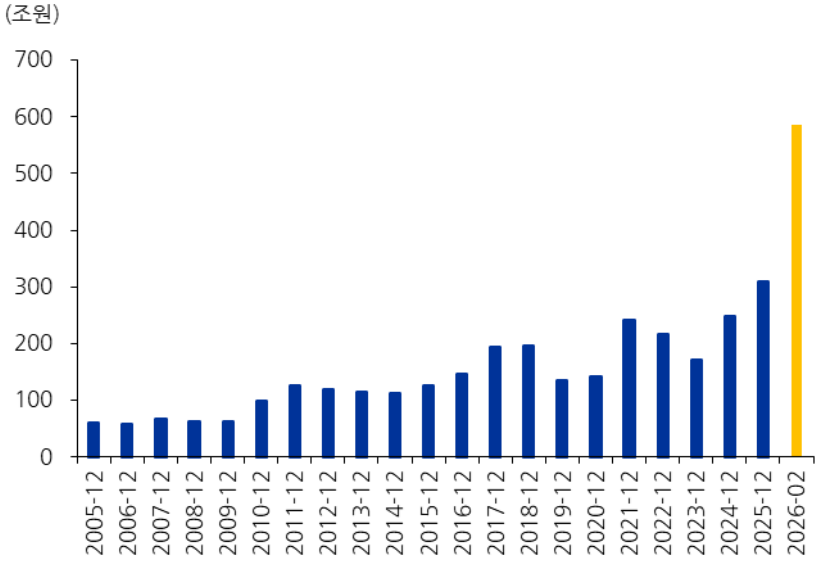
KOSPI, KOSDAQ 영업이익

이익과 ETF 규모 비교

-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영업이익은 2021년, 2022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감소했음. 올해는 작년보다 30% 증가 예상(12.7조원)
- 컨센서스 기준 올해(2026) 예상 코스닥 영업이익(13조원)은 코스피 영업이익(600조원)과 비교하면, 2%를 조금 넘는 수준임. ETF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KOSPI200 ETF 시총의 30% 이상 수준까지 급증한 코스닥 ETF 규모가 과해 보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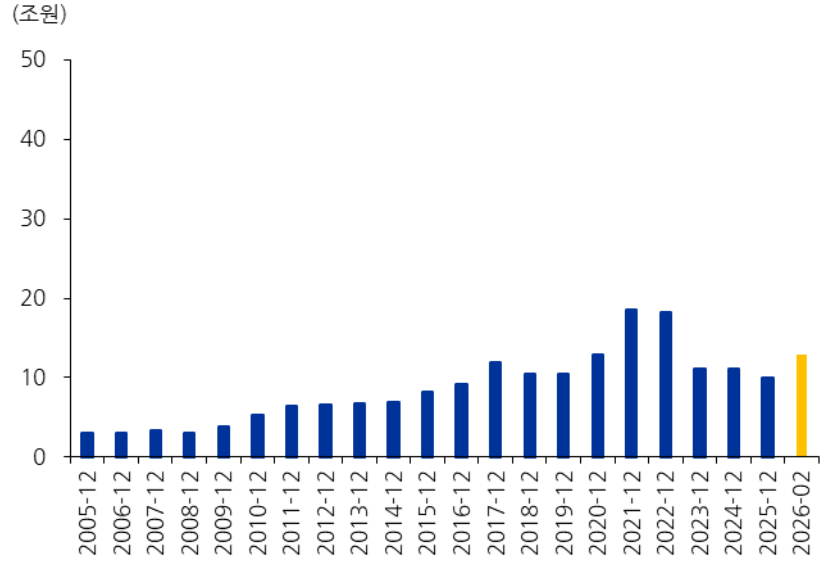
(*코스닥 주식 ETF는 코스닥150 지수 ETF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코스피 주식은 KOSPI200 지수 외에도 다양한 테마/업종 ETF가 상장돼 있음.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코스닥 ETF 비중은 작지 않음)

KOSPI 영업이익 추이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2025년까지 실제치. 2026년 이익은 컨센서스 금액

KOSDAQ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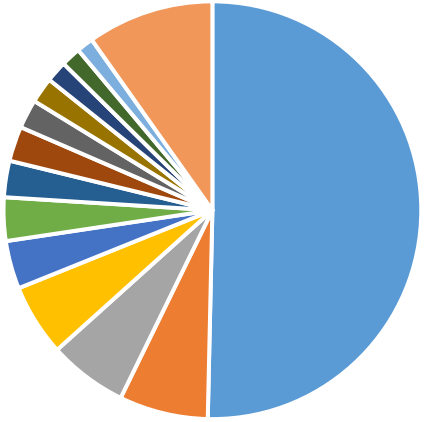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2025년까지 실제치. 2026년 이익은 컨센서스 금액. 왼쪽(KOSPI) 그림과 오른쪽(코스닥) 그림의 세로축 수치가 차이나는 점 check(700조 vs 50조).

KOSPI200, 코스닥150

업종 구성

- KOSPI200은 반도체가 50%차지(삼성전자, 하이닉스 2종목의 KOSPI200 비중 51%!, 2/27일). 다음 상사,자본재(지주, 방산), 은행, 자동차, 기계(원전, 전력기기), 조선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코스닥150은 반도체가 19% 비중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바이오) 비중 가장 높음(37%). 다음 이차전지(에코프로BM: IT가전, 에코프로: 화학)
- 코스닥150 지수 상승 = 바이오,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나타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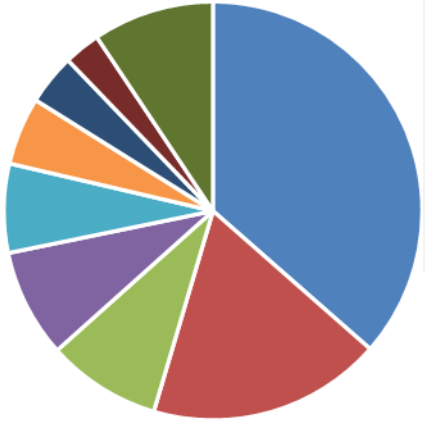
KOSPI200 업종 구성



반도체	51.6%
상사,자본재	6.7%
자동차	6.0%
은행	5.6%
기계	3.7%
조선	3.2%
소프트웨어	2.8%
건강관리	2.6%
IT가전	2.3%
증권	1.9%
화학	1.5%
보험	1.5%
에너지	1.2%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2월 27일 기준

코스닥150 업종 구성



건강관리	37.0%
반도체	18.6%
화학	8.8%
IT가전	8.1%
기계	6.9%
IT하드웨어	5.2%
소프트웨어	3.7%
미디어,교육	2.7%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2월 27일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